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9월 15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열왕기하 12장 1-3절

설교제목 : “말씀을 가까이 하라”

성경은 열매맺는 삶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열매맺는 삶이 중요할까요? 열매맺는 삶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요15:8)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 열매맺는 삶을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요15:4-5) 구원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열매맺는 삶이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즉 구원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마치 태아가 어머니의 태 중에서 탯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대로, 내가 전혀 열매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바르게 연결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맺는 삶을 위해서 농부되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선, 요15:2을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제거해버리시고”란 의미는 ‘잘라버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해 버리다’는 헬라어 ‘아이로’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끊어 버리다’(take away), 둘째는 ‘들어주다’(lift up)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들어주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열매맺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그의 손으로 들어 열매맺는 가지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버리시므로 우리를 성장케 하십니다. 요15:2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깨끗케 하다’의 의미는 ‘전지하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전지의 목적은 그 나무로 하여금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농부는 무엇이 어떤 부분이 전지되어야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농부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옛아담적 본성에서 나오는 옛 습관, 옛 모습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 가지치기 작업을 해주십니다. 농부되신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의 삶을 들어주시는 은혜로, 때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가지치기 하셔서 열매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열매맺는 삶을 위한 우리 편에서 해야할 수고는 없는 것입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딤후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5:7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면 이룬다는 것입니다. 원하는대로 구한다는 것이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후문맥을 살펴야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열매들을 열매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한다’는 것은 ‘남아있다’, ‘머물다’, ‘눌러있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는 꾸준함과 지속성, 주님과의 매일의 교제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과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성경은 항상 주님과 동행과 말씀과의 동행을 강조합니다. 그러할 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히4:12-13) 말씀은 우리의 걸모양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과 영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변화된 삶, 성숙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아달랴의 피의 숙청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달랴는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후에 다윗 가문의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시킵니다. 그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세바를 통해, 구사일생으로 아달랴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구테타에 의해 남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 유다에서 40년을 통치하게 되어 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아스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하12:1-2** “예후의 제 칠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행하였으되**”. 요아스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기며, 성전을 보수하는 등 개혁적인 일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주변에 잘못된 다수들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대하24:15-18) 요아스의 문제는 말씀 안에서 스스로 서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열매맺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말씀 안에서 스스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왜 구약시대에 레위지파를 전역에 흩어진 각 지파의 지역에 흠으셨습니까? 근접성 때문인데, 말씀에 가까이 두기 위해서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있을 때 열매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삶이 곧 복이요, 참된 형통의 삶이라고 합니다.(시1:1-3) 우리나라 기독교의 특이점은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그 만큼 말씀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은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말씀 앞에서 깨어진 역사였습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한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은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을의 서두에 다시금 말씀의 회복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열매맺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2) 열매맺는 삶의 세 가지 방편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요아스의 문제는 말씀 안에서 스스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열매맺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인 방법을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